

인문대

제36호 소식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2024년
가을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4년 9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김임숙(학장) 편집인 이은령(부학장)
디자인/제작 예소 전 화 051-582-1226

Contents

02 | 미래 단상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5 | 동문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11 | 신간소개



인문대학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 이용도가 낮은 도서실, 대학원정독실, 과제 도서실을 강의실로 전환해왔다. 인문관은 교내에서 강의실 활용도가 가장 높고, 교양 수업도 가장 많아 강의실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현재 학생 학습 공간은 틈새학습공간, 미래내골 옆의 학생회실이 유일하다. 기존의

학습실은 폐쇄형의 낮은 공간으로 학생들의 접근성이 낮았지만, 학생들이 선호 하는 편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인문관(부산대학교 구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제 641호)
한국 근현대 건축의 거장인 김종업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설계한 최초의 작품





10년 만에 다시 찾은 베이징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이화진

약 10년 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피해 나는 도망치듯 베이징을 탈출했다. 몇 년 후 연구과제 때문에 잠깐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마치 볼 일 다 봤다는 듯 나는 줄곧 베이징을 찾지 않았다. 리장(丽江),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그 사이 중국 남방 지역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베이징은 내게 단순히 중국의 수도이자 유학지가 아닌 하나의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다커우(五道口), 안딩먼(安定门), 후통(胡同), 궁티(工体) 등 곳곳에 그리운 사람들의 숨결이 있고 그들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이 가득하다. 내가 다시 베이징을 간다면 그 사람들 때문일 텐데, 일부는 베이징을 떠났고, 일부는 연락이 끊어져 다시 방문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부산대에 임용된 후 첫 중국 방문은 오히려 베이징이었으면 했다. 요 10년 간 내가 현대중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주요 동력은 중국 이해, 다시 말해 '차이나 리터러시'였고, 놀랍게도 나는 그것에 나름의 사명감까지 느꼈던 것 같다. 베이징의 독서회 멤버들은 새로운 보편성을 찾아 아시아 사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는 중국과 아시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 탐구했었다. 현대문학 또한 하나의 경로였기에 나의 관심은 중국을 이루는 여러 분야들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10년 사이 세상은 크게 달라졌고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융합과 혁신의 거센 흐름에서 디지털 언어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인문학이 주목받기도 한다. 한국 디지털 세대의 혐증 정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나는 부산대에 임용되어 중국 현대문학을 가르친다.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등의 물음을 스스로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10년 전 베이징의 그 사람들과 다시금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첫 만남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명함을 내밀 때 중국 연구자들은 웨이신(SNS)의 QR코드를 내밀었다. 4-50대 연구자들이 첫 만남에서 바로 카카오톡계정을 교환하는 셈이다. 종이든뿐 아니라 명함까지 사라진 '디지털 중국'에서 독서회 멤버 중 누군가는 더 이상 '문학'을 믿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학을 통해서 더 이상 '진정한' 중국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 대신 소도시로, 또 농촌으로 '역사'의 산 증인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중국의 표준어, 즉 푸통화(普通话) 학습자인 나로서는 중국의 지역어(topolect)를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장르문학이 인기다. SF 장르가 대표적인데, 그중에서도 사이버펑크로 불리는 황치우판(黄楸帆)의 『웨이스트 타이드(荒潮)』의 주요 서사는 놀랍게도 표준어와 지역어의 차이에서 기반한다. 광둥성의 지역어 차오저우어(潮州语)는 성조가 8개, 모음이 61개로, "살아 있는 고대 중국어 화석"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국어 화석 차오저우어와 역사학도

주인공이 자리한 소설 속 미래 세계에서는 오히려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보고서로 최소한 불확실성에 대한 서사관행으로서의 역사학에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인류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갔다.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인문학은 어떠한 지혜를 제공할 것인가? 다음 학기 중국 현대문학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 및 화해의 차원으로 읽어 보자.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는 그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나가자.

관계에 진심인 중국인들. 이번에도 출국 캐리어의 절반은 선물이었고, 귀국 캐리어의 빈 절반은 다시 그렇게 채워졌다. 가끔은 이러한 오랜 관행이 부담스럽지만, 좋은 사람들과 주고받는 인정이 싫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내 다음 여행지는 낯선 도시, 푸바오의 고향이 될 것 같다.

◆ 정년퇴직 교수

불어불문학과 전광호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광호 선생은 2003년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부임한 이후로 23여 년에 이르는 본교 재직 기간 동안 후학 양성 및 프랑스 소설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CREATION D'UN TEMPS ETERNEL CHEZ NERVAL(네르발 세계에 나타나는 <영원한 시간>의 창조)」, 「고티에의 두 환상소설, <죽은 연인>과 <아리아 마르셀라>에 나타나는 인물구도」와 같은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네르발과 고티에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도서 간행을 통해 학자로서 부산대학교의 이름을 드높였다.



한문학과 정출헌

1999년 9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5년 동안 학부 및 대학원생 등 후학을 양성하고 한문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교무부처장 및 점필재연구소장, BK21 단장, HK사업단 부단장,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원 부산밀양분원 분원장 등 학내외보직을 역임하였다. 학과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한문학회, 한국한문학회, 민족문화사연구 등 국내 우수한 한문학 관련 학회에서 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여 학계의 연구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 향후 명예교수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철학과 손영삼

부산대학교 철학과에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와 초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했다. 2003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21년 6개월간 부산대학교에서 서양현대철학, 현상학 담당 교수로 봉직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

한 질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교양교과목과 플립 러닝 교수법을 적극 개발하였다. 특히 전국대학교철학과연합회의 논술교육인증과정(논술트랙) 사무국을 운영하고, 철학논술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응용논리학을 통한 철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학술 논문으로는, 「로고테라피에 적용된 실존 분석에 대한 검토」 포함하여 총 2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인문학 진흥의 토대에 관한 연구」, 「아젠다 “로컬리티의 인문학”의 수행을 위한 제언」 등을 발표함으로써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내 봉사로는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소장 및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을 역임하였고, 1998년 6월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중심으로 창립된 전국철학회 “대동철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편집위원장, 대동철학회 회장을 역임함으로써,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중심으로 한 전국규모의 학술학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신입 교수



불어불문학과 강민수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Paris 3 대학에서 Master 2 과정을 거쳐 Aix-Marseille 대학에서 « Le Débat Schopenhauer et Nietzsche dans l'oeuvre romanesque de Michel Houellebecq » 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 출강하였으며 대표논문으로 「미셸 우엘벡 작품 속 세계화 양상과 서구의 쇠락 - 『플랫폼』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미셸 우엘벡의 비판적 전망 - 『소립자』에 나타난 오귀스트 콩트의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박소영	국어국문학과	1년	2024.9.1. ~ 2025.8.31.
이재봉	국어국문학과	1년	2025.3.1. ~ 2026.2.28.
류민화	일어일문학과	6개월	2025.3.1. ~ 2025.8.31.
전지현	영어영문학과	1년	2025.3.1. ~ 2026.2.28.
이재성	영어영문학과	1년	2024.9.1. ~ 2025.8.31.
윤애선	불어불문학과	6개월	2024.9.1. ~ 2025.2.28.
김승룡	한문학과	1년	2025.3.1. ~ 2026.2.28.
강은지	언어정보학과	1년	2025.1.15. ~ 2026.1.14.
이종봉	사학과	1년	2025.3.1. ~ 2026.2.28.
조창오	철학과	1년	2025.3.1. ~ 2026.2.28.
이창희	고고학과	1년	2024.9.1. ~ 2025.8.31.

인문대소식

◆ 인문대 보직자 명단(2024.9.1.기준)

김임숙 학장	인문대학	2024. 3. 1.
이은령 부학장	인문대학	2024. 3. 1.
김태우 학과장	국어국문학과	2024. 2. 1.
권도경 학과장	중어중문학과	2024. 1. 1.
한정선 학과장	일어일문학과	2024. 3. 1.
정병연 학과장	영어영문학과	2024. 1. 15.
이송이 학과장	불어불문학과	2024. 3. 1.
박영미 학과장	독어독문학과	2024. 1. 15.
양영란 학과장	노어노문학과	2024. 3. 1.
권정원 학과장	한문학과	2024. 3. 1.
서민정 학과장	언어정보학과	2024. 3. 1.
이승희 학과장	사학과	2024. 2. 1.
박효업 학과장	철학과	2024. 3. 1.
양은경 학과장	고고학과	2024. 9. 1.
권순복 전공주임	인지과학 전공	2021. 3. 1.

◆ 교내 보직교수 명단

양민중	국제처장	2024.5.20.
인성기	교양교육원장	2024.5.20.~2026.5.19.
이선진	교무부처장	2024.5.20.
임상택	박물관장	2022.11.18.~2024.11.17.

◆ 2023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나벼리**(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지도교수 : 박소영]
중세국어 문법상 체계의 변화 연구
- **남우정**(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지도교수 : 권경근]
한국어와 광둥어의 종결 억양 대조 연구
- **김세미**(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지도교수 : 박기성]
OTT 청각장애인용 한영자막번역 연구
- **고나은**(사학과 한국사전공) [지도교수 : 강정원]
20세기 전반 낙동강 하류부 치수사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 **전송희**(한문학과 한문학전공) [지도교수 : 정출헌]
深齋 曹兢變의 成學過程과 學的 實踐 研究
- **최금자**(한문학과 한문학전공) [지도교수 : 김승룡]
木齋 洪汝河의 시세계 연구
- **여창현**(고고학과 고고학전공) [지도교수 : 김두철]
소가야 고분문화 연구
- **이창윤**(인지과학전공) [지도교수 : 권순복]
그레이 스케일 광성문파형검사를 이용한 성대진동평가
- **김민성**(인지과학전공) [지도교수 : 권순복]
청각과민증 감별을 위한 청지각적 배수측정법의 고안 및 효용성 검증
- **장대익**(인지과학전공) [지도교수 : 권순복]
후진질한 분류를 위한 데이터 증강 및 합성곱 신경망(CNN) 기반 양성률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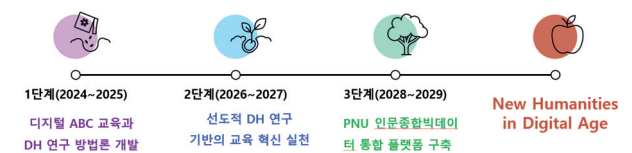
◆ 디지털인문학센터 설립 추진

글로벌30 사업의 하나인 「디지털인문학센터 설립」에 인문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설립의 주체가 되었다. 본격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5월 31일 ~ 6월 1일 2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디지털인문학 센터설립의 추진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양일간 송상현(고려대), 전봉관(KAIST), 김현중(한중연), 이재연(UNIST), 이승은(고려대), 김중복(경희대) 외부 연사와 인문대학 발전위원회(24년 4월 13명으로 구성)는 디지털인문학의 전공별 실제 교육·연구 사례를 듣고 적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문대학 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6~7월간 디지털인문학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과제(연구책임자 불어불문학과 이은령)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가칭)PNU 디지털인문학센터는 'New Humanities in Digital Age'를 비전으로 하고, '인문지식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교육·연구로 인문종합빅데이터 글로벌 거점 대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PNU 디지털인문학센터



◆ 인문관 502호(한빛관) 테이프 커팅식

2024년 3월 29일 인문대학 주요업무보고에 맞춰 인문관 502호 테이프커팅식을 시행했다. 인문관 502호는 RIS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부산공유대학(BITS) 거점 강의실 예산으로 공간을 전면 개선했다. 문화재인 인문관 외관의 백색과 곡선을 강의실에 그대로 담아 인문대학뿐 아니라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인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의실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제3차 학과장회의의 투표를 거쳐 최종 한빛관(제안자: 한문학과 권정원)으로 정해졌다. 502호는 '빛을 담은 공간'을 주제로 설계되었으며, '한'은 순수 한글로 '큰/한창/가득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인문관 강의실 개선사업 마무리



<디자인 시안>

인문관 201호(구, 도서실), 202호(구, 환경미화원실), 203호(구, 대학원정독실)는 2024학년도 7-8월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는 강의실과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문대학은 2022년부터 유휴공간을 찾아 부족한 강의 공간을 확

충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23년 부산공유대학(BITS) 거점 강의실 예산을 지원받아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추가로 202호 환경미화원실을 1층 경비실로 옮겨 세미나실까지 확보했다.

◆인문대학 환경미화원 발전기금 기부 감사패 전달



인문대학행정실 문숙희 환경관리원이 부산대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3월 28일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문숙희 환경관리원은 2023년 1월부터 인문대학행정실에 근무하여 인문관 및 교수연구동 환경관리를 맡아왔다. 발전기금에서 마련한 감사패를 인문대학장실에서 전달하고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대에서 일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했고 이제 퇴직을 몇 년 앞둔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부산대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자녀들이 다른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던 것이 떠올라, 나도 부산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번에 실천하게 됐다.”(PNU포커스 일부)

동문소식

◆고고학과 정대봉 동문 영남고고학회 우산학술상 수상



정대봉 동문(99학번)은 4월 6일 진행된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東北型石刀(동북형석도) 재검토」 논문으로 '제4회 우산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사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정대봉 동문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고학과 강민석 동문 2024년도 학예연구사 최종 합격



강민석 동문(석사 20학번)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24년 서울특별시 학예연구사(6급상당)에 최종 합격을 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청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매년 학예연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내고 있으며, 고고학·역사학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국문학과

교육 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3월 21일 울산 KINGS에서 우리학과와 폴란드 국립 바르샤바대학교의 교육 협약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본 협약은 부산대학교-KINGS-원자력공사-바르샤바대학 간의 4차 협약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K-컨텐츠 관련 국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맺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폴란드 내의 한국어-한국문화 연구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더욱 내실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국어국문학과 춘계 학술답사 시행



국어국문학과에서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학술답사를 실시하였다. 병산서원, 도산서원, 유교문화박물관, 최치원문학관 등 유교 문화의 배경이 되는 곳을 두루 답사하였으며, 하회마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작년 답사에 이어 지역의 경로당(용상경로당)을 미리 섭외, 방문하여 안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뵙고 방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 최종 선정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에 국어국문학과가 최종 선정,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한태문)이 지난 3월 출범하였다. 한국어문학의 혁신과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트랜스-로컬 시각과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학 통(通) 세미나’, ‘탈경계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문학 전국 학술캠프를 실시하여 예비 연구자의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답사 “중문인 한마당”



중어중문학과에서는 5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 일대를 답사하였다. 신입생, 재학생, 교수, 객원교수 등 46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순신공원, 동피랑 등 일대를 중심으로 둘러보며, 통영 항구의 풍광과 통영의 대표 음식들을 맛보기도 하였다. 저녁에는 그동안 수업에서 배우고 익힌 중국어와 중국문화, 문학을 응용한 퀴즈 형식의 게임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였다. 올해 역시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의 가장 큰 행사인 ‘중문인의 한마당’이 학생과 교수가 소통하고 교류하며,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어일문학과

일본문화탐방 실시



2024학년도 전공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월 23일부터 2박 3일간, 학부생 20명과 <일본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전공 역량 강화, 소속감 및 전공 애착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고쿠라,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등 규슈 일대를 둘러보며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 및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높아진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향후 대학 생활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학과 맞춤형 국외파견프로그램 참여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과 맞춤형 국외파견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일어일문학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국외 파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 향상, 협정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7월 중, 협정 대학인 '덴리대학'과 '고베대학'에 학부생 7명을 파견하였으며,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주관하는 '여름 특별 어학·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일본어 단기 집중 학습, 일본인과의 교류, 문화 체험 등의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영어영문학과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환영회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지난 5월 3일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약 50명의 학부생이 참여하여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개최



4월 26일 인문관 501호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위청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원 재학생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취업특강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졸업생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특강은 20학번 박수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학번 이다영(오리온), 17학번 장수빈(소노호텔앤리조트), 11학번 장정화(롯데쇼핑)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사기업 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매학기 개최하는 졸업생 취업특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노하우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전공 증진 프로그램 운영



영어영문학과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영문학과 전공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학생 요구가 반영된 토익, 토익스피킹 특강을 가졌다.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개강총회



불어불문학과에서는 3월 10일 시습관에서 예산안 발표 및 인준 등 개강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문가 특강



4월 11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기업가 서재우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프랑스 기업이 어떻게 자리잡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방학 DELF 특강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살로메 사페르 선생을 모시고 프랑스어 DELF 집중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불어불문학과 재학생 21명이 참여하여 전공 능력에 큰 도움을 얻었다.

◆ 독어독문학과

2024학년도 1학기 독어독문학과 탄뎀행사



독일어권 유학생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 탄뎀행사를 개최했다. 학기 동안 총 7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회화자료와 대화 주제를 통해 소통하며 한독교류를 진행했다.

한독문화예술교류탐방



김해지역 답사. <한독문화예술교류탐방>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발전된 독일의 도자기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독일과의 문화와 역사비교를 통해 한독문화교류의 확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 도자기체험 및 박물관 탐방을 통해 다양한 한독 역사와 문화를 경험함. 또한 독일과 한국과의 문화적 접점과 앞으로의 다양한 교류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짐.

◆ 노어노문학과

2024학년도 1학기 노어노문학과 개강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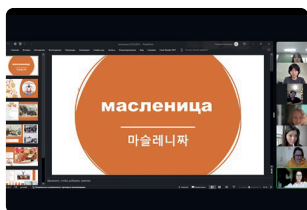
3월 7일 목요일,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강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노어노문학과 집행부의 소개, 1학기 전반 행사 그리고 동아리 소개를 통하여 2024년 1학기의 시작을 알렸다.

2024학년도 노어노문학과 짝선배 짝후배 프로젝트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전공 관련 멘토링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조 미션 수행·활동 진행을 하여 점수를 얻고, 점수에 따라 상품을 증정받는다. 총 2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참가한 학생들은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음' 등의 활동 소감을 남겼다.

2024학년도 노어노문학과 - 톰스크국립대학교 학생 간 언어교류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생들과 러시아 톰스크국립대학교 역사 및 정치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학생들의 줌(Zoom)을 통한 말하기·글쓰기 교류 프로그램으로, 노어노문학과 이용권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

었다. 1학기 동안 총 3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상대 언어로 자기소개 하기', '본인 나라의 명절 소개', '고향'을 주제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추후 2학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노어노문학과 마트료시카 만들기 행사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예술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며 노어노문학과 양영란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5월 8일 수요일과 9일 목요일에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마트료시카의 역사를 알아보고, 나무 모형에 직접 물감을 채색하여 각각의 개성이 담긴 마트료시카 인형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4학년도 노어노문학과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토론



학부생들의 소설 읽기에 흥미 고취 및 자기 계발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노어노문학과 양민중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5월 22일 수요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책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학부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어노문학과 박사수료생 천서현 선생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소설에 대한 부가 설명 및 다채로운 해석 관점을 제시하셨다.

2024학년도 노어노문학과 초량 러시아 문화거리 탐방



5월 22일 수요일, 노어노문학과 학부생들은 부산 초량 러시아 문화거리 탐방을 통해 러시아인 및 고려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러시아 식문화를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체험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미션을 수행하면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러시아어 회화를 실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한문학과

한문학과 춘계답사 및 신입생·복학생·편입생 환영회

• 일시 및 장소 13월 8일(금)~9일(토), 부산 해운대 일대



한문학과에서는 해운대(3/8~9)로 춘계답사 겸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다. "동백섬과 최치원"이라는 주제로 해운대 일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제26회 효원성년제

• 일시 및 장소 | 2024.05.20.(월) 16:30~, 인문관 필로티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5월 '성인의 날'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효원성년제(曉原成年祭)'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성년의 날인 5월 20일(월)에 사전에 신청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전통식을 치렀고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더해져 전통관례식의 멋과 흥을 돋우었다.

한문학과 옛님맞이

• 일시 및 장소 | 2024.05.25.(토), 운죽정



한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2024.5.30.(목) 16:30,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한문학과 박사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회가 2024.6.1.(목)에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에서 진행하였다. 발표자는 박사 이강석으로, 발표주제는 『동야회집』의 이야기 구성 방식과 서사적 특질에 관한 연구였으며, 대학원생들과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문학과 대학원 하계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2024.08.22.(목)~23(금), 경북 경주 일대



2024 하계 한문학과 대학원 세미나가 2024.8.22.(목)~23(금)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정출현 교수님 퇴임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1부 학위논문구상발표(전민경), 2부 자유발표(류화정 외 1명), 3부 연구노트(김정란 외 11명)로 나눠 진행되었다. 대학원생들이 한 학기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동학들과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언어정보학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류협정 체결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언어정보학과는 국내 유일 언어학 SCOPUS 저널 '언어연구'를 출판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와 2024년 1월 24일 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이를 기념하여 대학원생 주도의 공동학술세미나를 2024년 4월 26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양 기관의 학술 교류를 통해 상호 교육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사업 <언어이론 강의실> 1-4강 개최



언어정보학과는 영산대학교 권기양, 서울대학교 전중호 교수를 초청하여 언어학의 전통적인 핵심인 통사 및 음운론 분야의 <언어이론 강의실>을 1강부터 4강까지 개최하여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언어 이론 관련 심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강주제	일시	장소	강사
1강 생성문법이론의 현황과 전망	2024. 5. 27.(월) 16:30-18:00	연구동 209호	영산대학교 권기양
2강 Notes on Minimalist Program	2024. 5. 29.(수) 16:30-18:00	연구동 209호	
3강 생성음운이론의 기초	2024. 8. 7.(수) 15:00-17:00	연구동 209호	서울대학교 전중호
4강 최적성이론 및 최근 이론의 동향	2024. 8. 8.(목) 10:00-12:00	연구동 209호	

2024학년도 언어정보학과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2024학년도 전공 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사업의 일환으로 언어정보학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2024년 6월 5일 개최하여 전공 교육과정 및 학과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과에 대한 소속감 및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키고 신입생들이 체계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학년도 '통계의 기초' 취·창업 특강 개최



언어정보학과는 충남대학교 이용훈 연구교수를 초대하여 7월 15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특성화사업 취·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계의 기초' 비대면 특강을 개최하였다. 매일 아침 3시간씩 5일에 걸쳐 단기간 집중적인 통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1강부터 5강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수증 또한 발급하여 개별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학과

2024학년도 사학과 춘계정기학술답사 실시



올해 사학과는 3박 4일간(3월 26일 ~3월 29일) 전라도 일원으로 정기답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답사에는 전임교원 5명, 대학원생 3명, 학부생 90명이 참가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익산 미륵사지 석탑, 김제 벽골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을 답사하였다.

2024학년도 1학기 사학과 학부생 학회 연합 발표회 개최



2024학년도 전공 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사학과 학부생 학회 4개(한국사연구회 풀빛, 서양사연구회 Gnosis, 동양사연구회 東輝, 여성사연구회 FLAME)가 연합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각각 '철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프랑스 낭만주의 예술의 등장', '복숭아 신구당쟁 고찰', '17세기 전후 조선시대 열녀 담론의 변화 양상'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학부생 28명이 참석하였다.

2024학년도 1학기 사학과 한국사연구회 '풀빛' 답사 실시



2024학년도 전공 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하루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 일원 답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답사에서는 동래읍성, 부산박물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을 답사하였으며, 학부생 5명이 참석하였다.

◆ 철학과

2024 철학과 기초철학 학회 지원사업(신입생 대상)



2024 철학과 기초철학 학회 모임 지원 사업은 PNU Major+전공능력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본과 선배 학부생과 대학원생과 함께 철학의 주요 텍스트(『순자』, 『사서집주』, 『리바이어던』, 『오리엔탈리즘』, 『인간의조건』)를 분석하고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철학 전공 학술적 역량을 습득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철학과 대학원 BK21 "복합위기대응철학" 주제와 관련한 학회도 운영됨으로써, 철학과 대학원 진학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메가로스쿨 이해항 강사의 LEET 추리논증 파이널 특강



철학과에서는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는 부산대학교 학부생들을 위한 추리논증 파이널 특강으로, 메가로스쿨 소속의 이해항 강사의 무료특강이 7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방학 중에도 자료관 강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로스쿨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해항 강사의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로스쿨 시험의 핵심 포인트와 쟁점들을 습득하고, 사전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중국현대철학연구회·부산대학교 철학과 2024 하계공동학술발표회



철학과에서는 중국현대철학회와 공동주최로 "2024 하계 공동 학술발표회"를 7월 5일(금) 오후 3시에 개최하였다. 제1발표 "무아-윤회 논쟁 재고"(경남대 이길산 교수)에 이어서, 대만 중정대학교의 라이커주(賴柯助) 교수의 "왕양명은 자기(自欺) 및 그와 관련된 실천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제2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를 마친 후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중국현대철학의 동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철학과 BK21 복합위기대응철학 융합인재 교육연구팀 소식

▶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MOU 체결



철학과 BK21 복합위기대응철학 융합인재 교육연구팀은 2024년 7월 23일에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MOU를 체결하였다. 철학과 연구인력, 강사진 교류 및 콘텐츠 정보 교류의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BK21 교육연구팀의 "철학적 지역학"의 실천으로서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 2024학년도 1학기 철학과 BK21 교육연구팀 활동



철학과 BK21 4단계 참여 첫 학기인 2024학년도 1학기 BK21 교육연구팀의 주요 활동으로는 1. BK21 대학원생 참여학생 학술발표 2. 해외 저명 학자 초청 특강 3. BK21 연구자를 이끄는 연구자 특강 4. 대학원생 소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참여 대학원생들의 위기문제에 대한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7월에 사회위기전문가 지주형 교수(경남대 사회학과)와 생태위기전문가 유기쁨 연구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 특강을 개최했고, 국제적인 언어철학자인 이병욱 교수(캐나다 토론토대)를 초청하여, "우리 남편은 누구 남편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언어상대론적 관점에서 관계적 '위기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참여 학생들의 논문 발표 발표를 할 수 있는 학술발표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8월 7일에는 참여대학원생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주제발표회"를 진행함으

학과·연구소 소식

로써, 8월 21일(수)에 개최되는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연합 학술대회 발표문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고고학과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 개최



고고학과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한 국내외 저명학자를 모시고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을 개최하였다. 4월 16일에는 송원영(김해시) 학예연구관을 초청하여 <삼한과 가야> 특강을, 4월 30일에는 김종희(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를 초청하여 <간독(簡牘)의 발견과 중국역사의 새로운 이해> 특강을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2024학년도 고고학과 춘계 강원권 정기학술답사 실시



고고학과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 고고학과 춘계 강원권 정기학술답사를 3월 26일~28일 2박 3일간 진행하였다. 학부생 102명, 교원 4명, 조교 1명, 대학원생 2명 등 총 110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에서는 울진 후포리 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대학교 박물관, 단양 애곡리 발굴 조사 현장 등을 답사하며, 유적·유구·유물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를 통해 전공 역량 강화는 물론, 학우 간, 사제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한국고고학회-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동 주최 여름 발굴캠프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공동으로 미래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고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발굴캠프를 개최하였다. 고고학과 학부생 3명은 3주(6.26 ~ 7.12)간 '경주 쪽샘, 월성, 동궁과 월지', '함안 가야리 유적' '서울 풍납동 토성' 유적 조사에 각각 참가하여 이론교육, 전문교육, 실습교육을 이수하였다.

하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고고학과에서는 하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발굴 조사 현장 및 연구원 등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계방학기간에는 (재)두류문화연구원의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2명, (재)삼강문화재연구

원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1명, (재)울산문화재연구원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4명,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2명, (재)부경문화유산연구원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1명,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발굴 조사 현장에서 학부생 4명 등 고고학과 학부생 17명이 실습을 진행하여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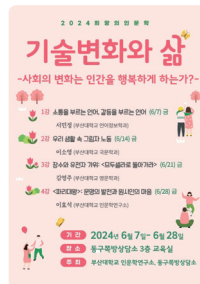
국립김해박물관·부산대학교 고고학과 BK21 교육연구팀 '가야加耶와 남조南朝' 공동개최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 팀(팀장 이창희 교수)'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윤형원)과 공동으로 2024년 가야학술제전의 첫 번째 심포지엄 <가야加耶와 남조南朝 - 해상왕국 가야의 새로운 도약 ->을 6월 14일에 개최하였다. 남해안 일대를 무대로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활약했던 가야의 다양한 외래계 유물을 바탕으로 국제교역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로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인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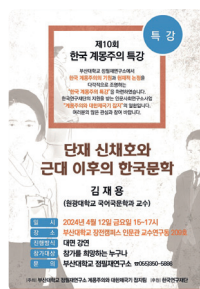
'2024 희망의 인문학: 기술변화와 삶-사회의 변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동구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2024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다. '희망의 인문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매해 찾아오는 인문학 강좌로, 올해는 "기술변화와 삶-사회의 변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문학, 언어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점필재연구소

제10회 한국계몽주의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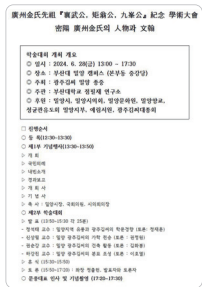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4.12.	인문관 교수연구동 209호	제10회 한국계몽주의특강 <단재 신채호와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 (김재용)

<2024년 점필재인문고전 아카데미> 행사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4.18. ~2024.06.20.	밀양향교 유림회관	국보 영남루와 영남루 시문의 감상과 이해 (1강~12강)

광주김씨선조 『양무공, 구옹공, 구봉공』 기념 학술대회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6.28.	밀양캠퍼 본부동 중강당	廣州金氏先祖『襄武公, 矩翁公, 九峯公』 紀念學術大會 <密陽 廣州金氏의 人物과 文翰>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교원 정년퇴직

조관연(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교수) / 퇴직일자: 2024. 8. 31.

2024년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 학술총서> 시행 및 선정

- 지원자격 | 부산대학교 소속 인문사회계열 연구인력
(전임교원, 강사, 연구원 등)
- 지원금액 | 편당 300만원
- 선정일자 | 2024. 5. 30(목)
- 선정 수 | 2편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

- 체결기관 | 무형문화연구원
- 체결일자 | 2024. 7. 30(화)
- 체결목적 |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협력관계 수립

인문강좌 운영

▶ 이영아 작가와의 대화

- 일시 | 2024. 4. 27(토) 14:00
- 장소 | 북구 만덕도서관 1층
- 강연 | 이영아(동화작가)

인문도시지원사업에서 출판한 “아주아주 커다란 선물상자” 제작 기념으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화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인문체험 <생태탐방선 타고 낙동강 물길 20리>

- 일시 | 2024. 5. 18(토) 10:00
- 장소 | 북구 낙동강 을숙도 일대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승선하여 낙동강 나루터의 역사와 강변 마을 이야기를 듣고 낙동강 생태를 함께 고민하고 강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었다.

▶ 인문체험 <우리동네 풍속화 그리기>

- 일시 | 2024. 5. 12(일) 14:00
- 장소 | 북구 화명도서관 대강좌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을 풍속화로 그려봄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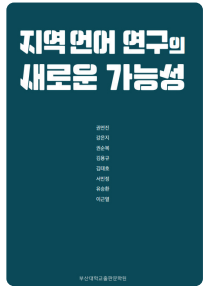


부산미각 : 돼지국밥부터 꼼장어까지, 살아 있는 의리의 맛

최진아, 김명구, 김경아 외 / 문학동네 / 2024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학연의 인문학자들을 저자로 구성해 부산의 음식을 다룬 책 <부산미각>은 재첩국, 복국, 돼지국밥, 완탕, 고등어, 대구, 웅어, 꼼장어, 낙지 등의 19개의 부산 음식을 다룬다. 또한 옛 한자로 된 동아시아 문헌 분석을

신간소개

통해 부산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재료가 동아시아의 인접 문화에서는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지를 음식인문학적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부산의 여느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판 스타일로 구성하여 대중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였으며 현재 대중인문학 강연 및 글로벌 교육콘텐츠로의 확장을 위해 '부산 식탁 위의 동아시아'라는 제명으로 케이 무크 제작 중에 있다.



지역 언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권연진, 강은지, 권순복, 김용규, 김태호, 서민정, 유승환, 이근열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4년도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에서는 부산대학교 특성화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언어 생태 회복을 위한 지역 언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2년 차인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역 언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과의 교수진을 중심으로 문화론적 연구, 부산 지역의 언어 연구, 문학 언어 연구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연구의 결과물로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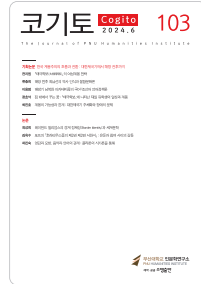


일본사 시민강좌
 이승희 외 9인 / 연립서가 / 2024
 여행, 음식, 대중문화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된 이웃나라. 호기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뜨거운 관심에 비해 우리는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얼마나 냉철하게 알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일본사학회와 경향신문 후마니타스 연구소 공동 주최로 최초의 '본격' 일본사 대중 강연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10명의 강사진이 제안하는 첫 번째 공부법은 전체를 시대순으로 훑어야 하는 부담스런 통사 읽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심사에서 확장하는 일본사 깊게 읽기다. 그래서 이 책은 티격태격 한일 관계의 원형이 된 고대 양국 관계사로 시작하여 호칭부터 핫이슈인 '천황'과 '왜왕'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한다. 『일본사 시민강좌』의 두 번째 제안은 일본의 역사를 어떤 대상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소재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의 일본사 읽기다. 위와 같은 공부법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 아시아, 세계의 이해로 확장되는 지적 경험을 선사한다.



카시러의 기술철학 읽기
 에른스트 카시러, 조창오(웁긴이) / 그린비 / 2024
 기술이 우리 시대의 화두다. 기술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미래를 열어 준다. 하지만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안겨 줄 절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카시러의 기술철학 읽기』는 에른스트 카시러의 논문 중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되는 「형식과 기술」(Form und Technik, 1930)과 이에 대한 웁긴이의 해설을 묶은 것으로, 카시러의 '상징적 형식의 철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당시의 기

술철학 담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기능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들을 재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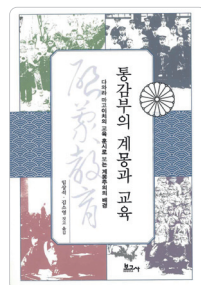
학술지 『코기토』 103호
 2024년 6월 30일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등재학술지 『코기토』 103호가 발행되었다. 이번 호의 기획주제는 "한국 계몽주의의 흐름과 전환: 대한제국기에서 해방 전후까지"이다.



대한제국기연구총서 1 <한자권 계몽주의의 변주-자강과 자유>
 김도형, 손성준, 김태진, 윤영실, 최진호, 임상석, 안예리, 전성규 / 보고서 / 2024



대한제국기연구총서 2 <대한제국기 학술장의 조감도-레퍼런스과 컨버전스>
 이준환, 전성규, 유석환, 임상석, 최진호, 윤영실, 권정원, 신재식 / 보고서 / 2024



통감부의 계몽과 교육
 임상석, 김소영 / 보고서 / 2024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87, 88
 온라인 학술지 발행 / 2024. 03, 2024. 07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31호
 온라인 학술지 발행 / 2024. 04